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본 “금융꿀팁” 책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모은 참고용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꿀팁은 관련 법규 등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금융거래 시
관련내용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은행

1	은행거래 100% 활용법(1) : 우대혜택	8p
2	은행거래 100% 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10p
3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12p
4	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 줄이기	14p
5	은행거래 100% 활용법(5) :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서비스	16p
6	은행거래 100% 활용법(6) : 디지털뱅킹(모바일, 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	18p
7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20p
8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금융꿀팁	22p
9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24p
10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26p
11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 편)	30p

금융투자

12	주식 투자시 주의할 대상	34p
13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36p
14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38p
15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40p
16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42p
17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45p
18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47p
19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 클라우드펀딩편	49p
20	ELS 등에 투자시 유의사항	51p
21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55p
22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58p
23	회계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61p
24	재무제표 확인시 주요 체크포인트	63p

보험

2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68p
26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70p
27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72p
28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75p
29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78p
30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81p
31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83p
3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86p
33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88p
34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90p
35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93p
36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95p
3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98p
38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100p
39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102p
40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105p
41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107p
42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09p
43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112p
44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15p
4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 가입시점	117p
46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 가입이후	119p
4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3) : 보장되는 것과 보장 안되는 것	121p
48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124p
49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127p
50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129p
51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132p
52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134p

신용카드

- 53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140p
- 54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143p
- 55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46p
- 56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148p
- 57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150p
- 58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152p

저축은행·할부금융·P2P

- 59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156p
- 60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158p
- 61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160p
- 62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162p
- 63 P2P 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16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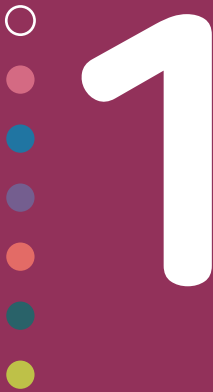
소비자정보

- 64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168p
- 65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170p
- 66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 172p
- 67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173p
- 68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 개인신용평가지 가점 받는 방법 176p
- 69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178p
- 70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183p
- 71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186p

72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188p
73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연금수령시점	190p
74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192p
75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194p
76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196p
77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198p
78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200p
79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	202p
80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204p
81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206p
82	설·명절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208p
83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유익한 금융정보	210p
84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215p

불법금융대응

85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220p
8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224p
87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227p
88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9p
89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232p
90	보험사기 피해예방 1 :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235p
91	보험사기 피해예방 2 :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237p
92	보험사기 피해예방 3 :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239p



은행

1	은행거래 100% 활용법(1) : 우대혜택	8p
2	은행거래 100% 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10p
3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12p
4	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 줄이기	14p
5	은행거래 100% 활용법(5) :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서비스	16p
6	은행거래 100% 활용법(6) : 디지털뱅킹(모바일, 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	18p
7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20p
8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금융꿀팁	22p
9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24p
10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26p
11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 편)	30p

은행거래 100% 활용법(1)

: 우대혜택

금융꿀팁 9

1 주거래 고객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시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에 집중하여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세요.

2 가족실적 합산 요청하세요.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므로 주거래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요청하세요.

* 가족실적 합산 요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3 본인에게 맞는 통장으로 변경하세요.

은행들은 고객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전용통장, 연금통장, 실버통장, 직장인통장, 가계부통장 등

4 전자통장 이용하세요.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니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하세요.

은행들은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1) : 우대혜택」(‘16.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 100% 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금융꿀팁 26

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는 현재 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찾으시면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금리조건 등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2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을 수시로 판매하고 있으니 예·적금 가입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전용상품 및 비과세 종합저축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이자 15.4%를 세금으로 공제(이자소득세 14.0%와 주민세 1.4%), 세법 개정 등으로 세율 변동 가능

4 자유적립식 적금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기예금 또는 적금 가입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5 만기가 된 예·적금은 바로 인출(재예치)하세요.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1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금융꿀팁 33

1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판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임의지정 불가)

2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및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 가능)

3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특판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 불가)

4 예·적금 만기시 휴일 前·後일 선택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안계좌 서비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17.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 줄이기

금융꿀팁 40

1 대출금액·기간 신중히 결정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2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별하세요.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 확인 필요

3 대출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하여 금리감면조건을 충족하세요.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다른 은행에서 이용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4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용등급 상향 등 사유발생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상담 받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므로 이자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

6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하세요.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대출만기 연장시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월단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으니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17.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 100% 활용법(5)

: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서비스

금융꿀팁 53

1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원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발생 가능, 휴대폰 번호 변경시 은행에 변경사실 통보 필요

2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은행들은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3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택 전세·매매거래 등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은행들은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이 인쇄되어 발행되는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발생 가능)

6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고객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시 등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5) :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서비스」 ('17.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 100% 활용법(6)

: 디지털뱅킹(모바일, 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

금융꿀팁 73

1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거래하세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및 상품가입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 등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반복적인 해외송금, 계좌이체는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시 디지털뱅킹(모바일·PC)을 활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영업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명서 발급, 카드 분실·재발급 신청 등 각종 부수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하세요.

은행에 따라 디지털뱅킹(모바일·PC)을 통해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 증명서 발급업무와 자기앞수표 분실, 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 등 분실신고업무도 제공하고 있어 영업점 방문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거래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알림서비스 이용하세요.

은행마다 금융거래가 발생한 즉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뱅킹 앱(APP)이나 별도의 앱(APP)을 통해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알림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공인인증서나 OTP 등은 모바일뱅킹에서 직접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세요.

최근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뱅킹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보안카드나 OTP 등도 실물 없이 프로그램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직접 배송하기도 하니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이용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은행거래 100% 은행활용법(6) : 디지털뱅킹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17.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금융꿀팁 50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 : 신용등급 상승,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 취업, 승진 등

4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17.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금융꿀팁

금융꿀팁 63

1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세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및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세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집주인의 배우자 포함)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를 요청합니다.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갹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예 : 4억원)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85m² 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납부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이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8년말 기준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③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17.8.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금융꿀팁 5

1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입니다.

- 1) 거래상대방에게 자금 이체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2)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자주 쓰는 계좌)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즐거찾기 계좌)를 이용해 오류없이 정확히 송금하세요.
- 3)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잘못 송금하였더라도 이체 이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 1)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반환청구 접수를 하세요.
- 2)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 진행시 반드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 3)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16.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꿀팁 83

I

해외직접투자

<사례1>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세요.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대상입니다.

<사례2>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외국환은행에 꼭 보고하세요.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3>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기한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세요.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

<사례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꼭 신고하세요.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입니다.

* 2년 이상 주거 또는 주거 이외 목적 : 외국환은행에 신고

<사례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사례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세요.

지분을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입니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사례7>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외예금

<사례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하세요.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사례9>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입니다.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 상계

<사례10>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세요.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18.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편)

금융꿀팁 90

1 해외직접투자시 현물(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세요.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대부투자→지분투자)하면 보고하세요.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

또한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세요.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세요.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 매각)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외국환 거래법규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편」(‘18.7.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12	주식 투자시 주의할 대상	34p
13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36p
14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38p
15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40p
16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42p
17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45p
18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47p
19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 클라우드펀딩편	49p
20	ELS 등에 투자시 유의사항	51p
21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55p
22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58p
23	회계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61p
24	재무제표 확인시 주요 체크포인트	63p

주식 투자시 주의할 대상

금융꿀팁 27

1 자칭 '주식전문가'

최근 증권방송, 인터넷, 주식카페, SNS(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자칭 '주식전문가' 또는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방송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대박! 추천종목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000 테마주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미등록 사설업자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단기매매 시세조종

소량(1주~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은 혐의자들이 소량 주식의 매수·매도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즉시 체결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인데,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주식투자시 유의사항 5적」(‘17.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금융꿀팁 44

1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거래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하세요.

증권사가 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대출을 이용하기 전 이자율을 비교(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시고,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활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및 시각장애인의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를 문의하세요.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또한 증권사는 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으니 시각장애인은 증권사에 수수료 할인여부를 문의하세요.

5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17.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금융꿀팁 55

1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 둔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CMA 계좌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3 유상증자 미참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세요.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세요.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5세 이상('19년 기준)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입자격 등을 문의하고 활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17.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금융꿀팁 15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하세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하세요.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유의하세요.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모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함

** 사모 :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하세요.

*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5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16.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금융꿀팁 75

IPO 공모주 투자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활용하세요!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공모가격 산정근거,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현황 등 공모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어 투자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확인하세요.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관련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투자설명서를 클릭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내용 확인

2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하세요.

주관회사는 절대가치법·상대가치법 등을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하며, 최종공모가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희망 공모가 및 참여 수량 제시)를 실시한 후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증가가 최종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를 클릭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공모가격 결정방법에서 내용 확인

3 청약현황을 확인하세요.

상장 후 주가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하여 청약자 유형별(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로 구분된 청약경쟁률 등 청약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현황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청약 및 납입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클릭
 - II.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청약 및 배정현황에서 내용 확인

4 의무보유확약 주식수를 확인하세요.

기관투자자는 주관사로부터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2주~6월등) 동안 공모주를 의무보유하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상장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의 대량매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매도물량의 증가는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무보유확약 물량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청약 및 납인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클릭
 - II.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에서 내용 확인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17.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금융꿀팁 65

1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합니다.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A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 징구)가 C클래스(선·후취판매수수료 미징구)에 비해 유리합니다.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1회성 선취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2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합니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3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세요.

동일한 펀드라도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펀드의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dis.kofia.or.kr/>)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가입시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

가입할 펀드를 정했다면 창구에서는 클린클래스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클래스는 창구판매 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명에 알파벳 'E'나 'S'를 포함하고 있으며, 클린클래스는 '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 환매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세요.

성과보수 펀드*는 투자금액의 일부만 환매하는 것은 안되고 전액 환매하여야 하며, 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되고 판매보수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펀드로 통상 펀드명칭에 '성과보수'가 명기되어 있음

6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를 체크하세요.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후 1~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펀드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 환매수수료 부과기준금액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봐야 합니다.

7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하세요.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의 투자비용은 총보수·비용(판매비용 + 운용비용 + 수탁·사무관리보수 + 기타비용)으로 결정되지만,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합성 총보수·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17.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76

1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사모펀드 투자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법상 1억원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데,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모펀드 투자전략 및 주된 투자대상을 확인하세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집합투자계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5 펀드매니저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를 확인하세요.

사모펀드의 경우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가능여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추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를 확인하세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하여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17.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 크라우드펀딩편

금융꿀팁 31

1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높으므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을 방문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엄정히 평가 후 투자하세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보아야 하며 공시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다른 투자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4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므로 투자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 크라우드펀딩편」(‘1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LS 등에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10

1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3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수준, 과거 가격추세, 향후 가격전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품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아지고 손실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한편, 제시수익률은 곧 높은 위험을 의미하므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시수익률에 따르는 높은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도록 설계된 상품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중 중도에 상환을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중도상환 절차와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파생결합증권 조기상환은 해당 시점에 발행 당시 미리 정해진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조기상환을 예상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만기까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지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을 보지 않고 상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감수가 불가피합니다.

9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나 ELF도 예금이 아닙니다.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추가연계 특정금전신탁) 및 ELF(추가연계펀드) 등도 예금이 아니며 사실상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습니다.

10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 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예금 등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므로 전세자금, 노후자금, 치료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청약서) 등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16.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금융꿀팁 36

1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입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로서 특정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매매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2 ETF 자산구성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ETF의 자산구성내역을 보면 투자예정 ETF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구성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운용사에 따라 ETF의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펀드이므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되므로 투자 전에 수수료 및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적오차”가 큰 ETF나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큰 ETF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부적합합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오르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는 기간수익률이 기초지수 기간수익률의 2배 또는 하락률만큼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합성ETF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합성ETF*는 원자재 등 실물복제가 어려운 기초지수를 쉽게 추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스왑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는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스왑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초지수 수익률에 대한 스왑(Swap) 거래를 통해 지수를 복제

7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지수나 농산물·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ETF는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ETF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 15.4%)됩니다. 이때의 이익은 i) 매매차익과 ii)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단,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ETF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17.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금융꿀팁 42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1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입니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인인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유의하세요.

2016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적정의견 기업 중 11.7%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어, 동 강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이 상장폐지된 비율(1.9%)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Key Audit Matters, KAM)”을 확인하세요.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17.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acct.fss.or.kr>) 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꿀팁 72

1 회계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세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은 크게 “회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리”, “자료실”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메뉴별로 회사별 회계처리기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시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주요 감리지적사례, 국제회계기준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회계위반 제재여부를 검색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동 제재 내역은 회계포탈의 “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계부정은 회계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고계신 경우 회계포탈의 “신고센터→회계부정신고·포상→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시 신고자의 신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세요.

회계처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회계포탈의 “회계질의→회계질의및Q&A 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의사항으로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Q&A,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며, 질의회신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 등을 거쳐 답변해 드리게 됩니다.

5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안내사항은 회계포탈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FAQ” 검색기능을 활용하시고,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외부감사인선임” 메뉴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감선임보고 제출서류”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회계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17.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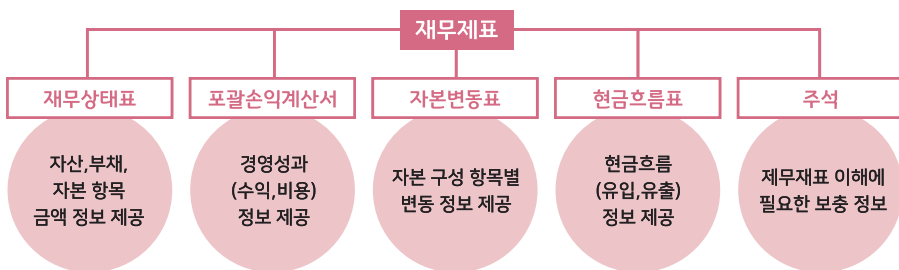
24

재무제표 확인시 주요 체크포인트

금융꿀팁 99

1 재무상태표만 확인하고 계셨나요? 다른 재무제표도 같이 보세요!

재무제표는 양적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1)재무상태표, (2)포괄손익계산서, (3)자본변동표, (4)현금흐름표와 이와 관련된 보충정보를 제공하는 (5)주석으로 구성되며, 각 재무제표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5가지 재무제표의 유기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2 막막한 재무제표 숫자, 주석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재무제표 본문은 주로 간략한 금액 정보만 표시되는 반면, 주석에는 관련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보충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분석시 반드시 본문과 관련 주석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질 경영성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를 하나로 합산한 후 내부거래 등을 제거한 재무제표이며, 지배기업만의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연결실체 내부거래와 외부 고객과의 거래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무제표는 당기만 보지 말고 과거 재무제표와 함께 보세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와 당기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를 통해 기업의 성장 이력, 비경상적 거래효과 등을 파악하고, 향후 성장성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5 기업의 현금, 어디서 벌어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중 발생한 현금흐름을 기업의 활동별, 즉,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있어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유출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및 수익성과 현금흐름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영업이익, 실제 영업현금흐름과 비교해서 따져보세요.

영업이익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지 말고, 현금흐름표에서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수익성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의 유입·유출에 대한 정보는 현금흐름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업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과 현금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석에 공시된 투자 현황, 피투자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황 및 관련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수관계자 거래 및 약정 등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주석을 통해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약정 조건, 대손충당금 설정액, 보증·담보 제공 내역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9 숨어있는 부채가 있지 않을까요? 우발부채 주석을 찾아보세요.

소송·보증 등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등에 대한 주석을 통해 우발손실의 발생 가능성 및 시기,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자본인데 상환가능성이? 자본의 실질구성을 확인하세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상환 가능성 등 부채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질적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발행사가 만기에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일정 조건 충족 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재무제표 확인시 주요 체크포인트」(18.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68p
26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70p
27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72p
28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75p
29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78p
30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81p
31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83p
3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86p
33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88p
34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90p
35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93p
36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95p

보험

3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98p
38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100p
39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102p
40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105p
41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107p
42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09p
43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112p
44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15p
4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 가입시점	117p
46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 가입이후	119p
4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3) : 보장되는 것과 보장 안되는 것	121p
48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124p
49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127p
50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129p
51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132p
52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134p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금융꿀팁 35

1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2 위험보장 /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저축성보험은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많으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음

3 보험료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납니다.

* 보험상품별 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약관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1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51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상 주요사항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

**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거나,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17.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 보험에 가입할 때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5가지 지표를 체크해 보세요!

금융꿀팁 64

1 보험가격지수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임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지수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장기)보장성보험' → 원하는 상품선택
→ '보험가격지수' 확인

2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비율 확인 방법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공시실' → '기타공시' → '불완전판매비율 등' → '불완전판매비율 비교공시' 클릭

3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률 확인 방법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공시실' → '기타공시' → '불완전판매비율 등' → '보험금 부지급률 등 비교공시' 클릭

4 소송공시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공시 확인 방법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공시실' → '기타공시' →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공시' 클릭

5 지급여력비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지급여력비율 확인방법

- 인터넷 검색포털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선택
⇒ 'RBC비율' 확인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17.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꿀팁 100

1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i)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ii)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 (i)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 (ii)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통해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가 제시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설명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생·손보험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모집종사자 코너’
→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 ‘보험대리점 등록조회’
-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 ‘모집종사자’ → ‘보험대리점 조회’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번호, 본점 주소, 임원현황, 위탁계약 체결내역, 모집종사자 현황 등

※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소비자’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
-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18.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금융꿀팁 3, 88

1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됩니다.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3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고려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사항

▶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됨

▶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음

5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입니다.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에서 저축성보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보험다모아 : <http://www.e-insmarket.or.kr>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상품비교공시) : <http://pub.insure.or.kr>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16.8.24.) 및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8.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금융꿀팁 16

1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력자보험 활용

보험회사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 병력·가입조건 등 고려, 3가지 유병력자보험 유형 중 선택

- 간편심사보험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 간편가입 건강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〇〇 실버암보험” 또는 “□□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무심사보험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 실버보험”, “◎◎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3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 활용

고혈압·당뇨병 유병력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력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변경 시점에 가입자의 건강상태(고혈압 또는 당뇨병 外)에 따라 계약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4 유병력자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필요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유병력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대부분의 유병력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고,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16.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 변액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유의사항을 바로
알고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19

1 원금보장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

변액보험은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 받는 보험금액·연금액 등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 목적을 분명히 따져 보고 가장 적합한 유형의 변액보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목적에 따른 보험상품 유형

구분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가입 목적	장기 자산증식을 위한 자금 마련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보장자산 마련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금 마련
보험 상품	변액유니버설 (적립형)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보장형)	변액연금

* 변액유니버설보험 : 변액보험의 실적배당기능, 유니버설보험의 자유입출금이 결합된 보험

3 보험회사별 사업비와 수익률 비교는 필수

변액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사업비, 펀드 수익률 현황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내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0년 이상 장기 유지함이 바람직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입니다. 특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이후에도 적절한 펀드 변경 등 관리 필요

보험회사는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계약자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후에도 펀드변경 등 본인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수익률에 유리하려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

변액보험 또한 다른 저축성보험과 같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7

온라인으로 납입보험료·수익률 등 확인 가능

변액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세한 계약정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편입 펀드정보 등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 이전 등 펀드변경 관리도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16.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22

1 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이나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필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구분

구분	세부항목
보존치료	크라운, 충전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6.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 4가지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금융꿀팁 85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2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8.5.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금융꿀팁 95

1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님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3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험회사·보험상품·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BMI지수(몸무게/키)”를 요건으로 함

4

보험료가 저렴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해지환급금 과소 지급형(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가입 고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과소지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과소지급형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 하는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30% 저렴,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 : 10~20% 저렴 (회사마다 상이)

5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쌈

*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예: 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임

일부 소비자들은 CI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회사·상품별로 상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43

1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2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동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3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4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1)」(17.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67

1 무사고자 할인 특약

“新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7.4월 이후 판매된 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17.4.1일 가입자가 2년간 비급여 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2019.4.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계약 할인 특약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액계약 할인 특약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예: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특약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5 수급권자 할인 특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2」(17.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금융꿀팁 7

1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됩니다.

2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자동차보험은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를 통해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3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보험가입시 자신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자녀할인특약, UBI(Usage Based Insurance) 특약 등이 있습니다.

4 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6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합니다.

7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보험회사들은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8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16.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 자신의 운전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해 보세요!

금융꿀팁 56

1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1)군 운전병 복무, (2)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3)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4)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5)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3 전화로도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앞서 2-(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5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17.7.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79

1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예: 10,000 ~ 20,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입니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분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합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 회사마다 상이)하는 특약입니다.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분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렌터카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예 : 1일 3,400원, 회사마다 상이)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4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한편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였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

4 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 가입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 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 ②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5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 가입

운전자에 따라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0.3% 또는 500~2,000원,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 중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 1」(18.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84

1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 가입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 (1)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 (2)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 (3)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 (4)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 (5)적응형 순항제어장치입니다.

2 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 가입

* 일명 “UBI(Usage-Based-Insurance) 특약”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금융꿀팁 62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2

보험료 할증 피하러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17.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금융꿀팁 62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1)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 I 만 보상되고 대인배상 II는
보상되지 않으며,

(2)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 II 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됨)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3)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2 과실비를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4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18.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6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41

1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찾기: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보험상담·보험정보-자동차보험 관련 안내-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3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일정요금(예: 2천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4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자동차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17.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알아두세요!

금융꿀팁 69

1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3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4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통해 확인

과실비율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APP)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 가입시점

금융꿀팁 12

1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가입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지만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됨

2 성형수술비, 간병비 등은 비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품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기존 '특약형' 가입자는 실손의료비 부분만 '단독형'으로 전환가입 가능

2018년 4월부터 다른 주계약(예 : 사망, 후유장해 등)에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기존 '특약형' 가입자의 경우 실손의료비 특약 부분만 해지하고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전환)이 가능합니다.

4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매년 보험료 갱신, 15년마다 보장내용 변경 가능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16.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2)

: 가입이후

금융꿀팁 39

1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음

2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원, 8천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앱(APP)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

※ 간편청구 기준금액 및 방법은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5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음

6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 가입이후」
('17.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3)

: 보장되는 것과 보장 안되는 것

금융꿀팁 54

아래 5가지 항목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혼동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외에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항목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현행(2017.5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과거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상 보장항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품 구입비는 비보장

병원 입·통원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및 의약품 구입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 등)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예: 수술포 등) 및 의료보조기(예: 하악전방유도장치, 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재료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
2) 대장 또는 위 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

3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실손의료보험은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개선을 위한 유방확대(축소)술과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은 보장되지 않는 진료항목입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및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선택 또는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질병코드 K00~K08), 한방치료 및 직장·항문 질환치료(질병코드 I84, K60~K62, K64)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질병코드 K09~K14)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됩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임신, 출산 및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나, 요실금(질병코드 N39.3, N39.4, R32)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3)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17.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금융꿀팁 81

1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 통상 “非흡연자”, “정상혈압”, “정상BMI지수(몸무게/키)”를 요건으로 함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5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1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꿀팁 86

1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상기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상해보험 가입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18.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6가지

금융꿀팁 71

1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보험회사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APP),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편청구 기준금액 및 방법은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2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회사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시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17.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금융꿀팁 71

1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3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가장 쉽게 비교·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이용

4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17.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금융꿀팁 74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한편, 연금저축 가입자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
(=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5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17.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53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140p
54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143p
55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46p
56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148p
57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150p
58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152p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금융꿀팁 17

1 본인의 지출성향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vs. 부가서비스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편의성 vs. 안전성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연회비 부담

연회비는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지므로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① :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16.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금융꿀팁 8

1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카드를 잘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2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상품안내장 숙지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준수

카드이용대금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

카드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확인

할부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개월(18.0%)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

6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는 가급적 선결제

현금서비스이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므로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리볼빙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어 연체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특히 최소 (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볼빙 이용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10%이상)으로 카드이용대금 중 최소결제비율만큼 결제하면 연체상태를 피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16.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금융꿀팁 77

1

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 제공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 유의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합할인한도 확인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 선택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5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 확인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할부구매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 부과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가족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 ▶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음
-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 ▶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됨
- ▶ 가족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품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내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법」(‘1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포인트· 할인혜택 100% 활용법

금융꿀팁 37

I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

그래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 경과시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 “내카드 한눈에” - “포인트조회”를 이용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17.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금융꿀팁 4

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2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한도 가급적 적게 설정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4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7 분실·도난 카드를 되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카드 결제승인 관련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적극 활용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16.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금융꿀팁 57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영역 자주 이용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7월부터 연봉 7천만원 이하 봉급자가 도서 및 공연 관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길 필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므로 평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17.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할부금융· P2P

59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156p
60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158p
61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160p
62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162p
63	P2P 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163p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금융꿀팁 80

1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B톡톡’으로 불리는 동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앱(APP)을 다운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통해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정기예금 가입시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5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적금은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18.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금융꿀팁 97

1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저축은행 비교금리 공시·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의「서민금융 1332」홈페이지 또는「서민금융통합콜센터」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 프리워크아웃 지원 요청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7.1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입니다.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①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②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오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18.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20

1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상품공시-(할부)자동차금융상품” 선택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

2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하여 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

3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보세요.

2016.12.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할부금융 상환 후 저당권도 말소해야 차량 매매 또는 폐차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대행 처리).

5 중도상환 수수료 등 계약내용 확인

자동차 할부금융업무처리는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1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금융꿀팁 29

구분	상품명	지원 대상
대출	① 새희망홀씨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최대 3천만원)
	②미소금융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등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③햇살론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 6~10등급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
	④사잇돌대출	-연소득 은행 근로소득 2천만원 등, 저축은행 근로소득 15백만원이상등 (최대 2천만원)
	⑤바퀴드림론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근로자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등 (최대 3천만원)
적금	⑥미소드림적금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⑦ 저소득층 우대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⑧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취업·창업자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수급가구 청년
보험	⑨ 서민지원 소액보험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등
	⑩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서 중고자동차 (5년 이상) 소유자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17.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P 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금융꿀팁 68

1 P2P 대출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한 투자상품입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입니다.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여야 하며, 여러 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입니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미합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6①항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이드라인의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하세요.

*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여야 함(P2P대출 가이드라인§6)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P2P금융협회는 P2P업체들의 회원가입 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업체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17.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64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168p
65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170p
66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	172p
67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173p
68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	176p
69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178p
70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183p
71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186p
72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188p
73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연금수령시점	190p
74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192p
75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194p

소비자정보

76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196p
77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198p
78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200p
79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	202p
80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204p
81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206p
82	설·명절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208p
83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유익한 금융정보	210p
84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215p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금융꿀팁 1

1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신용등급은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됩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2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피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판은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4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5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평가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현명한 신용관리요령」(‘16.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금융꿀팁 82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넛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18.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

금융꿀팁 13

1 1년 3회까지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합니다.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나이스지키미」 (<https://www.credit.co.kr>),
「올크레딧」 (<http://www.allcredit.co.kr>)

2 신용등급 확인으로 인한 등급 하락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자신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설명들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확인 방법」 ('16.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금융꿀팁 23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를 정확히 알고 신용등급 관리에
활용하세요!)

1 긍정적 반영요소

1 대출금 상환이력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는 금융소비가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신용평가시 긍정적 정보로 반영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기간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고 연체없이 상환하면 긍정적 정보로 반영되며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연체상환 및 연체상환 후 경과기간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연체 이전의 등급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연체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4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통신·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반영요소

1 대출금 연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이 길수록 장기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2 신규대출 및 대출건수 증가

일반적으로 대출금액 및 대출건수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커지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제2금융권 대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연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하게 되면 부채의 증가로 보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16.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

금융꿀팁 23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보세요!

1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정보가 풍부한 자(thick filer)의 가점폭은 축소될 수 있음

2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

** 신용등급 1~5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4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5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 (3) :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17.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금융꿀팁 78

1 고금리 대출 이용시, 2018.2.8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8.2.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年 24%로 3.9%p 인하됩니다. 금번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2.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2018.2.8)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2018.2.8일 이후에는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을 할 때 새로 인화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립니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

1)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거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이용자의 연체율보다 높음

특히,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입니다.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은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등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합니다.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상환 또는 2년이상 성실상환(연체없이 대출금 75% 이상)한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연 9.0% 이내 금리로 대출

한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점상 가점*(5~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CB사) 1~1000점 기준(1~10등급) 기준, 단,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사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 제한 가능

새희망홀씨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혜택은 전국 15개 은행(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편, 여러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나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금리인상기, 대출목적·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을 고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①적격대출 ②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③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통상 3년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동안 0.25%p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또한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COFIX*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COFIX*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합니다.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COFIX(Cost of funds inde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대출

한편,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 예·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본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개인별 거래실적·특정조건 가입 등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18.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금융꿀팁 58

1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되었다면 해지 하여 잔액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대표적인 후면예금 사례 5가지」(‘17.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금융꿀팁 11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 연 납입합산액 4백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3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백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4백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으로만 연 7백만원 세액공제 가능)

2 일반적으로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는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자의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3.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3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4백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3백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등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16.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금융꿀팁 24

I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2001.1월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2.2%)까지 부과되므로 가입자의 손실이 큼니다.

1994.6월 ~ 2000.12월 기간중 가입한 구 개인연금(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신탁·펀드 : 자유납입으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언제든지 납입 재개 가능
연금보험 : 20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

3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담보대출시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16.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연금수령시점

금융꿀팁 38

1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수령액이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舊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만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 ~ 69세	5.5%	4.4%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3.3%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연금수령시점」(17.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금융꿀팁 66

1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매년 발생하는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17.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금융꿀팁 30

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친해지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금융생활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개인신용등급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으므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수시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 카드사용 대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많이 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반면 대출금의 연체, 신규대출 및 대출건수 증가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3 주거래은행 정하기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급여통장, 적금·펀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뱅킹 등 은행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하기 보다는 한 곳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여 집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기능이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유리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주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종잣돈 모으기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서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투자성향, 수익률, 안전성, 자금필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저축(투자)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저축방법은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정기적금”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지만 수익률이 낮고, “적립식펀드”는 주식·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정기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6 보장성보험 우선 가입하기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액의 종신·변액보험 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자제하기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부담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17.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금융꿀팁 47

1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활용하세요.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 적금 가입전 필요한 준비물,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해지절차, 금융바우처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취급은행에 문의 필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4 다양한 혜택이 있는 어린이펀드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을 뿐더러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절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불의의 사고·질병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세요.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체크카드를 통해 합리적 지출습관을 형성하세요.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17.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금융꿀팁 48

1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하세요.

은행들은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우대금리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은 예·적금 가입시 은행에 우대상품에 대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현재 16개 국내은행이 “어르신전용상담(거래)창구” 및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중이니 일반 은행창구 등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를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2017년 4월부터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17.5.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금융꿀팁 52

1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

2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3 만성질환자는 “유병력자보험”을 활용하세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유병력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력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저축성보험을 10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조기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신중을 기하세요.

5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이 경감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17.6.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

금융꿀팁 59

1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세요.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영업점 방문시 직원에게 문의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ELS, ELT 등과 같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세요.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ELS 등 투자시에는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상품의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포함하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LS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세요.

2017.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였을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인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17.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금융꿀팁 49

1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세요.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어,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구비)하는 것이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2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되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우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17.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금융꿀팁 28

1 우선 '1332'를 통해 상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ARS ①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⑩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FAX·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서류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여의도 본원 및 지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우편, FAX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 제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와 이용방법」(‘1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꿀팁 6

1 연휴 중 신권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 운영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

일부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 설치여부, 영업일자,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3 교대 운전에 대비하여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

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긴급출동 서비스특약’에 가입

명절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16.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꿀팁 25, 91

환 전

1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APP)에서 확인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APP)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주요통화(미 달러·유로·엔)의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내 “외환길잡이” 코너의 ‘인터넷환전 안내’ 참고

2 이중환전(국내:달러 → 국외: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달러는 국내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임

3 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내 “외환길잡이” 코너의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참고

여행자보험

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비교 가능

여행자보험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1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내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2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APP) 등을 이용하여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5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1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운전상황에 따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내용

긴급견인서비스 |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상급유서비스 |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긴급급유(통상 3L 급유)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시 충전(배터리 교체시는 실비 부담)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 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잠금장치 해제 | 잠금장치 해제조치

긴급구난 |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 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4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요령

조치	내용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함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16.12.26.) 및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18.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금융꿀팁 18, 32

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은 한마디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이버',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6.9.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로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금·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펀드 등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잠자는 내돈 찾기(휴면계좌 통합조회) (<http://www.sleepmoney.or.kr>)

은행, 보험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잊어버리고 있던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다모아(<http://e-insmarket.or.kr>)

「보험다모아」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입니다.

자동차보험, 저축성 보험, 실손의료보험상품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5 카드포인트 통합조회(<http://cardpoint.or.kr>)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자가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카드 사용 후 2~3일내에 적립되는 포인트가 조회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도 알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

6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현재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연금보험 등에 대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 연금자산 수준에서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산정해주는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기대하는 은퇴생활 수준에 맞는 여유자금 마련 또는 연금가입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7 내계좌 한눈에(계좌통합조회)(<http://payinfo.or.kr>)

개인의 은행·저축은행·서민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계좌 및 보험가입·대출내역, 신용카드 보유현황·결제예정금액·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쉽게 조회, 해지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csc.kr>)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불법 유사금융회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연락처, 소재지, 허가업종 등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10 신용·보험정보 조회(<http://credit4u.or.kr>)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보험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2016.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의 정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16.11.10.) 및 「잡자는 내 돈, 가장 확실하게 찾는 3단계 비법」('17.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금융대응

85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220p
8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224p
87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227p
88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9p
89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232p
90	보험사기 피해예방 1 :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235p
91	보험사기 피해예방 2 :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237p
92	보험사기 피해예방 3 :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239p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금융꿀팁 46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6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9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요령

1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17.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꿀팁 2

1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광고 연락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처리비용 등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클릭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16.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금융꿀팁 93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연이체 서비스

자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말기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4 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18.8.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꿀팁 14

1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미끼 사기법의 전형적 수법·행태

- 1 00%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 2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 3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 4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 5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6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 7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 8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 9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 10 최근에는 밴드(Band)·블로그(Blog)·창업카페·주식카페·클라우드편당·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4 원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지체없이 신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산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6.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꿀팁 21

1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등이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을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6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7 “○○용으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 비법·특급 주식정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책임 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xx금융·xx캐피탈”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16.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보험사기 피해예방 1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금융꿀팁 92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합의는 시간(여유)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뀌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1 :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18.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피해예방 2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94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스러운 병원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 또는 사무장병원은 수익보전을 위한 과잉 진료를 주로하며 보험사기 연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2 :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18.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피해예방 3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96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시 신고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꿀팁 보도자료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 :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18.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비매품/무료



9 791190 018005
ISBN 979-11-90018-00-5

발행처
주 소
전 화
발행일
디자인편집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02 3145 5144
2019년 4월
우리21221

이 책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